

넷북을 위한 구글 크롬 OS가 나온답니다.

구글 크롬OS는 오픈 소스로 개발되었으며, 넷북을 겨냥한 가벼운 OS입니다. 저희는 올해 말 코드를 공개하고, 구글 크롬OS를 기반으로 하는 넷북이 2010년 하반기 시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프로젝트와 관련해 이미 파트너들과 협의를 진행시키고 있으며, 조만간 오픈 소스 진영과 실무논의에 들어갈 것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과 구글의 비전을 공유하고자 노력해 왔기 때문에, 모두들 저희가 이루고자 하는 바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구글 크롬OS의 핵심은 스피드, 단순함, 그리고 안전성입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사용자들이 수 초 내에 웹에 빠르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빠르고 가벼운 OS를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UI)의 경우, 사용자에게 방해할 줄 수 있는 것은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대부분의 사용자 경험이 웹 상에서 일어나도록 했습니다. 구글 크롬 브라우저를 만들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저희는 기본에 충실하고자 OS의 근본적인 보안 아키텍처부터 완전히 다시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바이러스나 멀웨어, 보안 업데이트 등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OS 상에서 자동적으로 해결이 될 것입니다.

구글 크롬OS는 ARM 칩은 물론 x86에서 모두 구동 될 것입니다. 또 내년에는 다양한 넷북이 출시될 수 있도록 다수의 OEM 업체들과 논의 중에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는 간단합니다 — 구글 크롬이 리눅스 커널 외에 새로운 윈도잉 시스템(windowing system)에서도 구동되게 하는 것입니다. 애플리케이션 개발자에게 웹은 하나의 플랫폼입니다. 따라서 모든 웹 기반 애플리케이션은 자동으로 구동 되며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은 사용자가 원하는 웹 기술을 통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은 물론 구글 크롬OS 뿐만 아니라, 윈도, 맥, 리눅스에서 구동 되는 다른 표준형 OS에서도 구동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개발자들은 어떤 플랫폼이든 최대의 사용자 기반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 구글 공식 블로그 인용

구글이 사전에 공식 발표를 하기도 하는군요. 어찌됐건 매우 흥미로운 프로젝트입니다. Acer, Adobe, ASUS, Freescale, Hewlett-Packard, Lenovo, Qualcomm, Texas Instruments, 그리고 Toshiba 업체와 합작한다고 합니다. 즐거운 상상을 하며 2010년을 맞이할 수 있겠네요.